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진단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대다수는 지방소멸 위기
소관부처 이원화 등
정책적 문제 해결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입으로 농어촌의 생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착 농어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소병훈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등 정책적·구조적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경 배재대학교

행정학 명예교수가 ‘농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영태 한국수산업어촌연구원장이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독복지과장 김석훈 해

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소병훈·김승남·신정훈·안호영·주철현·조정훈·윤미향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생활속 탄소중립 시민 선언’

전주시의회,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토론회
‘RE100 시민클럽’ 가입 선언 · 조례 마련 등 논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31일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RE100 시민클럽’ 가입을 선언했다. RE100 시민클럽은 시민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생활속 탄소중립 시민선언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도로·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이 전주시 제도 현황 및 타시도 사례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전주시의회 한승우 김원주 의원,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장과 공직자들이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마련과 제한 규제 개선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같은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회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듣겠습니다”

도의회, 오늘부터 2개월간 도민제안 청구 운영... 11월부터 행감

“도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오는 11월(제396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청구’를 운영한다.

도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으로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방법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전주 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 의사당 단관실) 또는 이메일(star5503@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소정의 사은품을 10명 이내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국주영은 의장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 예결·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경자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남수 의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3년 6월 말까지다. /김경수 기자

제2대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인 9월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남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광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와 의원의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추석 전후 금품 제공행위 단속 강화

전북선관위,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등 유지

선관위가 추석 전후 금품 제공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수기자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 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리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0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체포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경수기자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장 등과 환경청 항의 방문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역 정치권 또한 반대의견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이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관내 한 민간기업이 상관면 신항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환경청에서는 서류 미비

등 부적합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의회는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완주군 주민들은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여 28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상관면을 대표하는 편백숲의 청정자연을 지키고 인근 초·중·고 학생들 및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결사적 반대를 주장하고자 환경당국 항의 방문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전북지방환경청이 군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수기자

문승우 도의원,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3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2022년 제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홍석준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사)한국가업경영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각 기관 및 연맹에서 공동 제공된 소비자평가 모듈을 평가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평가된 인물, 기업 등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문승우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존중받고 개인과 기업 등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유이수 완주군의원, 완주조경수유통센터와 간담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장이 지난달 31일 완주조경수유통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조경수능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 건설경기가 둔화되어 조경수

에서 대한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소양철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조경농가의 어려움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완주군의 조경수가 다양한 판로를 통해 판매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이중복기자

WONDER FAIR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2. 9. 13(화) ~ 9. 17(토) 18:00까지

★ 학부신입생 혜택

- WONDER '취업' 6개월 교육 후 수도권 벤처기업 정규취업! (1인당 1,700만원 상당 교육과정 무료, 100명 선별)
- WONDER '장학금' 연구와 동반 입학시 자기개발비 600만원! (장외공과대학, 인문대학)
- WONDER '학교생활' 신입생 기숙사 신청 시 입사 보령! (총 11명당 3,700여명 입사 가능)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2. 9. 26(월) ~ 9. 30(금)